

박정희의 조경관*

배정환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Park Chung-Hee's Thoughts on Landscape Architecture

Pae, Jeong-Han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modern landscap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1970s.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 main axis in this process of establishmen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Park Chung-Hee's thoughts on landscape architecture. It can show us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his thoughts and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ark Chung-Hee and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can be interpreted as double sides. First, landscape architecture was a matter of great interest for Park Chung-Hee. His involve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went well beyond that of an amateur. Second, landscape architecture was a strategic instrument for practicing his political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ism. There are three remarkable tendencies in his thoughts on landscape architecture. First, he regarded that the main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was to cover and to decorate damaged sites. Second, he had a contradictory notion of tradition and history. Last, the European pastoral ideal was his criterion for the beauty of landscape. His thoughts on landscape architecture were an amalgamation of these three contradictory ideas, and it has left some controversial inheritances for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Key Words : Park Chung-Hee,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ism, Contradictory Tradition, Pastoral Ideal

* 이 연구는 2002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신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Cheonan 330-714, Korea. Tel. : +82-41-550-3632, E-mail : jhanpae@dankook.ac.kr

1. 들어가며 : 문제와 시각

한국조경학회 창립(1972년)과 대학 조경 교육의 시작(1973년,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을 기점으로 잡는다면, 한국 현대 조경(학)의 역사는 이제 30년을 넘어섰다. 이 짧은 시간은 태동의 시간을 겪으며 한국 조경은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치적·대중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입어 조경은 앞으로도 밝은 풍경을 그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희망적인 풍경의 이면에는 정체성의 위기,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이론(교육)과 실천(현장)의 단절, 설계 문화와 윤리의 미성숙,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과 같은 난맥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좌표와 전략을 기획하는 일이 한국 조경(학)에 요청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한국 조경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걸음은 지난 30년의 역사에 대한 진단과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 조경의 반성적 평가라는 장기적 기획의 출발점에 해당하며, 필자는 추후 한국 현대 조경사의 주요 지점들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해 그러한 장기적·연속적 연구 과제의 징검다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에 바탕을 둔 본 연구는 반성적 평가의 첫 번째 공간을 박정희(1917~1979)로 설정한다. 한국 현대 조경의 기점은 대통령 박정희와 긴밀한 함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그 이후의 30년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현대 조경은 민간의 수요에 의해 태동되었다기보다는 한 국가 통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 권력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박정희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근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그 개인의 '조경에 대한 생각'이 조경의 성립과 그 이후 양상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새마을운동, 경주종합개발계획, 대단위 관광지개발, 문화유적지 보수사업 등

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조경 전문업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학제를 성립시킨, 한국 현대 조경 출범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 자체로만 인정한 채 그것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거나 또는 박정희의 조경이 이후의 현대 조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¹⁾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한국 조경의 태동과 박정희를 결레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박정희와 조경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 학술적 논의는 사실상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박정희는 단지 하나의 박제된 이미지로 한국 현대 조경의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한국 현대 조경은 지난 30년간 어떤 경로를 경험했고 그 궤적은 현재에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가? 이러한 반성적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첫걸음은 박정희의 조경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해부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곧 본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문제 의식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즉 본 연구는 대통령 박정희의 조경 관련 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일보다는³⁾ 그의 조경에 대한 생각—조경관—과 그것을 형성하게 한 저변의 배경—성격, 정치사상, 경제 정책 등—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박정희는 단순히 제도적으로 조경을 도입하고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많은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에 개입함은 물론 그 결과를 챙겼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정희 시대의 조경은 그의 조경관이 투영된 "박정희식 조경"을 형성했을 것이고 그것은 당시의 정치 상황과 여건상 실제의 조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박정희의 조경은 조경 관련 업적의 양이나 종류보다는 조경에 대한 그의 생각에 비중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그의 조경관이 한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의 조경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는 당연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II장에서 박정희와 조경이 만나는 지점—특히 현대 조경의 성립과 관련된—을 그의 조경에 대한 관심과 그 저변의 사상적·정책적

배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II장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취하는 III장은 박정희의 조경관을 추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의 조경 정책과 프로젝트의 기저를 이루는 조경에 대한 생각과 사상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그 이면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조경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이 한국 현대 조경사 30년의 스펙트럼에 남긴 유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II. 한국 현대 조경과 박정희의 함수

조경과 박정희가 맺고 있는 함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상호 연관된 이 두 가지 문제의 하나는 박정희 자신이 조경에 대해 단순한 관심이나 아마추어적 취미를 넘어서는 전문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결례를 이루는 다른 하나의 측면은 박정희 체제의 경제 정책과 정치적 상황이 조경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 조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조경과 조경학이 제도화되던 1970년대 초반보다 훨씬 이전부터 박정희가 조경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저서와 일기, 각종 행정 문서와 기록, 그의 주변 인물들이 쓴 다양한 종류의 회고록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1960년대의 박정희가 생각했던 조경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흔히 '녹화'라고 지칭되는 사업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정희는 지독한 가난을 겪으며 성장기를 보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우리 민족의 가난 추방은 천명"(박정희, 1978)이라고 말할 만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집착했다. 그에게 있어서 황폐화된 산림은 빈곤의 상징이었다. 즉 그는 국토를 푸르게 녹화하는 것을 "조국이 발전되는 기준"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런 생각에는 1964년의 독일 방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우리 국토가 푸르게 될 때까지 다시는 유럽을 방문하지 않겠다"(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 163-64

재인용)고 말할 정도로 그는 녹화에 대한 집념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집념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정희의 조경에 대한 관심을 단순히 아마추어적 취미의 실천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가 전문 조경가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다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의 최장수 비서실장인 김정렴은 "박 대통령 자신이 일류 조경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김정렴, 1997 : 59)고 회고하기까지 한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는 "...퇴청한 후에도... 창안하고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려 다음날 아침에 지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야산개발방법, 수종 개량을 위한 산림의 벌채 요령, 농촌취락구조 개선방법, 고속도로 주변 조경과 휴게소의 설치요령 및 관광단지의 구체적인 개조 요령 등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창조적인 것이 적지 않았다"(김정렴, 1997 : 343)고 한다. 당시 경제 제 1수석비서실 내에 조경·건설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오휘영이 "한달에도 2~3건의 조경 관련 지시 사항이 필자에게 직접 하달되곤 하였다"(오휘영, 2000b : 34-35)고 증언하고 있듯이,⁴⁾ 박정희는 주요 조경 대상지를 직접 선정하고⁵⁾ 전문가의 계획이나 설계 행위에 가까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또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75년 봄, 박정희는 내무부장관, 산림청장, 도로공사 사장에게 국도변의 절개지나 포락지 녹화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신설·확장과 산업 발전에 따라 인위적인 절개지의 증대와 산야 하천의 관리 소홀로 자연 경관을 해치는 일이 많다"(안효빈, 1977 : 102-103 재인용)고 지적하면서, 서울-수원간 절개지의 녹화 계획 스케치를 직접 그리고 수종과 식재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도 했다(그림 1 참조).⁶⁾ 또한 박정희는 조경의 스타일에까지 직접 관여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 테면 그가 고속도로 연변을 "대자연에 맞게 조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으나 도로공사의 시공 결과 종래의 동양식 정원 가꾸기식으로 되어 만족하지 못했다"(김정렴, 1997 : 343)는 일화도 전해진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박정희는 1973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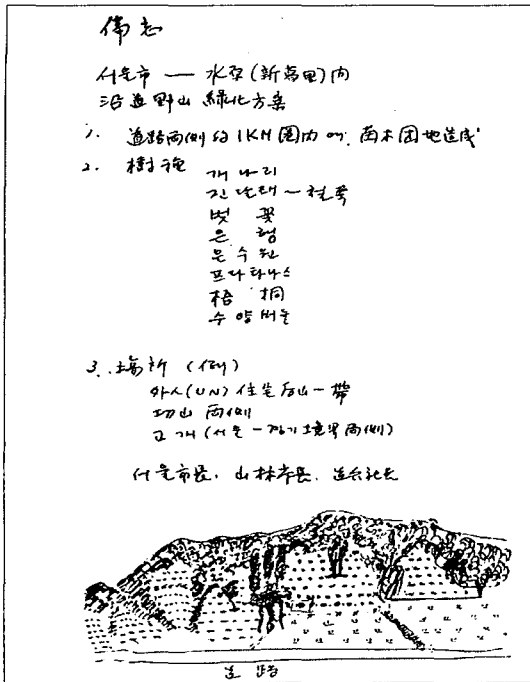


그림 1. 박정희의 조경 구상안
자료: 안효빈, 1977 : 103

도산공원(서울 강남구 소재) 공사를 직접 시찰·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종을 지정하는 메모(그림 2 참조)를 서울시장에게 전하기도 했다(박인재, 2002 : 62).

더 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박정희와 조경 사이의 함수에서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먼저, 박정희 자신이 조경에 대한 소질과 능력을 자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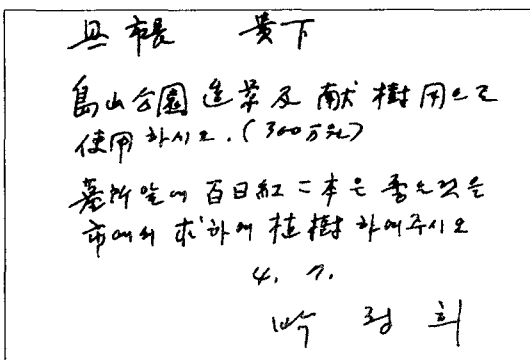


그림 2. 박정희의 수종 지시 메모
자료: 박인재, 2002 : 62

범학교의 종합적 교육을 받은 그가 미술과 식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시찰, 지시, 확인—전문적인 조경 프로젝트 진행의 조사, 계획·설계, 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조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여러 가지 사건은 박정희가 조경에 대해 품은 관심의 강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조경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다양하고 즉각적인 성과를 낳았다는 점이 곧 적절하고 우수한 조경이라는 등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스타일의 문제에까지 관여하고 공사 과정과 결과까지 직접 챙긴 박정희식 조경은 그가 당시에 누렸던 절대적 권력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불량 위주의 획일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조경을 양산했다는 비판도 가능한 것이다. 박정희의 업무 추진이 정책 목표를 단순화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반드시 달성하는 군사적 방식 또는 목표지향적 리더십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사적 총력전”(김대환, 1993 : 56)이라고까지 비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모순이 배태되었다는 데에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조경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의 녹화는 밀어붙이기식 녹화라고 평가되곤 하는데, 일에 대한 집념만으로 진행한 근대식 녹화 사업이나 공비소탕작전을 벌이듯 수행한 화전정리사업, 농촌의 고유한 경관을 일거에 정리한 새마을운동의 조경 사업 같은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경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이 조경 관련 행정, 제도, 교육 등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 개인의 적극적인 관심만으로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와 학문이 태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박정희와 조경의 긴밀한 관계를 지탱하는 데에는 보다 큰 차원의 배경이 자리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절로 공간을 옮겨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경제개발과 민족주의, 그리고 조경

박정희 정권에 불어다니는 근대화 신화의 중심 테마는 다름 아닌 경제개발이다. 경제개발의 깃발은 곧 민

주주의 정치와 합리적 가치 체계의 회생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자면, 경제개발은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 획득에 핵심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아직도 그 신화를 추억하는 일이 한국 사회 일각에는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적 의미의 조경이 탄생하게 되는 사연 역시 이 경제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즉 한국 현대 조경사의 서장에서 박정희를 다룰 때 그의 개인적 관심을 넘어서는 더 광범위한 차원의 배경을 짚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선 경제개발이어야 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경주개발계획의 수립은 현대 조경이 한국에 도입되는 계기로 흔히 언급되는 두 가지 프로젝트다. 예컨대, 전적으로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1973년에 신설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와 설립 배경은 “1) 경제 성장에 의한 환경 문제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성, 2) 현충사를 비롯한 국난 극복 사적지의 복원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인한 산복 절개의 미적 회복이나 산사태 등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3) 경주 종합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등”(황기원, 2002 : 66)이었으며, 1972년 말에 창립된 한국조경학회의 배경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⁷⁾ 이러한 배경은 곧 박정희가 조경을 도입한 이유와 그가 생각한 조경의 역할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위의 2)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발생한 환경적·경관적 문제의 해결은 박정희의 중대 관심사였으며, 조경과 조경학을 제도화시킨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로 고속도로변 조경에 대한 박정희의 집념은 대단했다. 예를 들어, 1975년 4월 16일, 그는 내무부장관과 산림청장을 대동하고 대구로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주변 구릉과 절도 부분에 대한 조림 및 조경에 대해 24건을 지시했다. 거리로 따져 9km 당 1건씩, 매 6분마다 1건씩”(안효빈, 1977 : 68) 조경에 대해 지시한 셈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경제개발의 상징이었으며 실제로 국토의 공간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조경은 경제개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에 의해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의 비중이 옮겨감에 따라 새로 건설된 대규모 공장 또한 전문적인 조경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개발과 맞물려 또 다른 방향의 궤적을 그리며 조경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하나의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리 요약하자면,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유난히 강조했던 ‘민족주의’이다.⁸⁾ 민족주의—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전통 문화—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정통성과 명분의 만회를 위해 채택한 이데올로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민족주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정책이 ‘국난 극복의 역사적 문화 유적 및 선현 유적에 대한 보수·정화 사업’이었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환경대학원의 설립 배경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현충사의 정비가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⁹⁾

“현충사의 성역화 사업이야말로 공장을 몇십 개 몇백 개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민족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민들의 호국 정신을 양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선인들의 유적지를 연차 사업으로 정화하고 성역화시켜 나갈 것이다”(정재경, 1992 : 234 재인용)라는, 박정희의 1968년 8월 29일 연설은 현충사를 비롯한 유적지들에 대한 그의 애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박정희는 “자기가 지시한 문화 유적의 보수 정비 사업을 설계 단계부터 챙길 정도로 매우 열성적”(정재훈, 2000 : 38)이었으며, 특히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조경에 대해 지대한 열정을 쏟았다(오휘영, 2000a). 또한 정재훈(2000)의 견해에 따르면 ‘조경’이라는 단어가 공식적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도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내린 현충사 등의 유적지 정비 지시(1963년)에서라고 한다. 박정희와 청와대가 조경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전문 교육을 도입한 직접적 계기였던 경주개발계획 역시 경제개발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업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현대 조경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주변의 조건은 경제개발과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상보적 정책과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경의 도입은 박정희의 전문가적 관심의 소산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경제 정책 노선 및 정치 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체제로 들어서며 내건 1980년까지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불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70년대 중반에 이미 달성한 박정희 정권은 국토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 국토개조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며,¹⁰⁾ 이러한 그랜드 플랜은 1970년대의 조경 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물려 태동하고 성장한 조경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장으로 잠시 미루기로 한다.

III. 박정희의 조경관과 그 이면

위에서 우리는 박정희와 조경이 형성하고 있는 함수를 그의 개인적 관심과 정치적·경제적 배경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파악한 바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의 달성을 실천하는 마키아벨리스트였던 박정희의 리더십에 비추어볼 때 박정희의 조경에 대한 생각은 실제의 조경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조경에 대한 그의 생각을 해부하고 그러한 생각이 낳은 결과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박정희와 조경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의 조경관, 즉 그가 조경에 대해 지니고 있던 생각은 아래에서 논의될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그것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는 동시에 서로 모순된 관계 속에서 뒤엉킨 혼합물(amalgam)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1. 개발의 은폐 또는 회장

앞에서도 일면 검토한 바와 같이, 급격히 도입된 한국 현대 조경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개발의 환경적 부작용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일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가 조경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했던 녹화, 그리고 고속도로변의 조경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생각했던 조경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녹화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은 '녹화'라는 일본식 한자어의 가장 단순한 뜻이 그러하듯 '푸르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보인다. 물론 식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민둥산과 황무지를 일단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적 녹화가 최우선의 목표였다. 그가 직접 녹화를 지시한 영일지구사방사업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데, 그것은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총 공사비 38억 2,800만원, 연인원 300만 명이 투입되어 황폐지 4,538ha를 녹지대로 탈바꿈시킨,

당시로서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박정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이 곳"(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 163-64 재인용)이라는 경관적·시각적 문제 때문이었다. 이는 박정희가 생각한 경관과 녹화의 개념을 단적으로 노출시켜 준다.

박정희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추풍령식 조림'에서도 이러한 화장술적 경관관·녹화관이 드러난다. 이 추풍령식 조림은 임도를 횡으로 내도록 한 것인데, 이는 "큰 비가 올 때 한꺼번에 흘러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 볼 때 뺨뺨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다"(중앙일보특별 취재팀, 1998 : 165 재인용)는 박정희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처럼 시각적인 면에 치중하여 진행된 녹화 사업이 황폐지를 푸르게 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지질을 산성화시키는 속성수 위주로 녹화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또한 박정희가 생각한 조경의 시각중심적·장식적 기능을 드러내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조경 교육과 전문업을 제도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조경 역시 개발에 따른 주변 경관의 시각적 훼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에 전국에서 진행된 관할주조경 공사의 다수와 문화재 성역화 사업 등에서도 개발의 시각적 영향을 은폐하거나 화장하는 방식의 녹화 일색 조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상지의 의미, 역사, 생태적 측면 등이 고려된 경우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조경 관련 지시는 실무 행정부서나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그의 시찰이나 현장 확인을 일시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면피식 조경을 하게 한 경우도 많았다. 물론 "접도구역 안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철저히 막으라고 했지, 아무리 접도구역 안이라 할지라도 이미 서 있는 건물을 아무 대책 없이 헐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시찰한다고 있는 집을 헐고 거기에다 생나무를 베어다가 눈가림으로 환경미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정재경, 1992 : 173 재인용)는 박정희의 힐난에서 드러나듯, 그러한 면피식 조경은 박

정희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의 강권적 지시를 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형식적으로 조경 공사를 한 희극의 원인 역시 조경의 역할을 시각적 은폐 내지 화장술적 장식에 두었던 박정희의 조경관으로 소급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박정희 체제를 떠받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취락 구조 개선, 농촌 환경 개선, 농촌 주택 개선 등과 같은 사업에서도 면피식 조경 또는 전시 행정적 조경이 종종 등장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¹⁾ 예를 들어, 1978년 새마을운동의 중점을 농촌 주택 개량에 두고 대대적으로 집 고치기를 장려하는 가운데 웃지 못할 일이 자주 발생했다. 가령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주택 개량 사업에서 주택들은 전통적인 동향이나 남향이 아니라 “고속도로향”(안창모, 1996 : 141)으로 다시 세워졌으며, 전통적인 농촌 경관을 서구 지향의 이국적 야류 주택들이 점령하게 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모순된 전통

민족주의는 박정희 정권의 18년에 늘 동반했던 화두 중의 하나였다. 물론 박정희 체제가 민족주의적이었는가는 논란거리이지만, 민족주의를 발전주의와 결합시켜 경제개발을 위한 담론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박명립, 1996). ‘조국 근대화’, ‘새역사 창조’, ‘자립경제’, ‘민족중흥’ 등과 같은 일련의 담론은 민족의 발전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논리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민족주의 담론은 “서구와는 다른 한국적 전통을 부각시키고 냉전분단체제의 반공주의를 특권화함으로써 서구적 민주주의를 평가절하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김호기, 1998 : 106)으로 보이며, 3선 개헌 후 10월 유신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변질된다.

이른바 “전통의 창조”(Hobsbaum and Ranger, 1983)라 할 만한 박정희의 민족주의 담론은 큰 체계모니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제 3세계의 경우 물질적 영역에서 서구에 대한 모방이 성공적일수록 정신적 문화에 대한 보존의 욕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Chatterjee, 1993 : 6)이다. 박정희식 민족주의

에 입각한 이른바 ‘전통’은 건축과 조경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수용되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는 전통이란 과거 양식의 무비판적인 형태적 차용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많은 수의 왜곡된 전통적 건축물들이 설계되었고, 전통의 계승과 관련된 다수의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¹²⁾

조경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유적지는 물론 공단이나 관광지 등 당시의 주요 조경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가 전통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정희 자신이 다수의 조경 공사에서 전통성 또는 민족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예도 드물지 않다.¹³⁾ 그러나 특히 조경에서는 그 전통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의 조경은 물량을 소화해내는 수준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전통을 설계 철학이나 개념의 추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분히 이데올로기로 덧씌우곤 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최정민이 적절히 분석하고 있듯이, 이 시기의 조경 작품들에는 “전통 조경 양식, 옴스테드 양식이 설계 요소와 기법으로 도입되었고, 조형 향나무를 중심으로 기교를 부린 배식 기법과 아기자기한 자연석 쌓기 같은 일본식 정원 요소도 전통 요소와 구분 없이 사용”(최정민, 1993 : 65)되었다.¹⁴⁾ 즉 당시의 조경을 둘러싼 전통 담론은 매우 허술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초창기 한국 조경의 수준이 허약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박정희 체제가 강조한 전통이 모순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경과 관련된 전통관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정치사상 저변에는 강박적인 역사 의식과 위기의식, 그리고 모순적인 전통관이 깔려 있다. 그의 역사 의식은 “지난 날 우리의 선대들이 살고 간 역사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는 오늘의 우리 세대야말로 정녕 영욕이 무상했던 도정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박정희, 1978 : 1)는 형태를 띤다. 전인권은 이러한 역사관에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쇄를 승계하는 역사의식과...현재를 언제나 ‘획기적인 시대’라고 이해하는 위기의식”이 모순적으로 동거하고 있다

(전인권, 2001 : 310)고 분석하고 있는데, 박정희는 늘 미래를 말하지만 그의 모범은 늘 과거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정희는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했으나 한민족의 구체적 역사 내용에 대해서는 “퇴영과 조잡, 무기력과 나태의 역사”라고까지 말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전인권, 2001 : 340). 즉 그는 역사와 전통의 승계를 강박적으로 의식했지만, 그 역사와 전통을 승계하기 위해 과거를 단절적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모순된 전통관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조경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사정은 다음에서 살필 목가적 이상과도 중복되므로 절을 바꿔 논의하기로 한다.

3. 목가적 이상

박정희의 조경에 대한 생각에는 그의 사고와 행동 전반을 지배한 몇 가지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인 ‘목가적 이상’이 자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박정희의 사상과 행동을 전기적으로 분석한 전인권에 따르면, 그의 목가적 이상은 그가 다른 시기보다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던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되었으며 특히 대구사범학교 졸업 후 문경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던 1937년 무렵에 절정에 달한다. 3년간 계속된 박정희의 문경 시절은 보람차고 활기찬 것이었다. “그는 [벽촌의] 그런 생활에 익숙했고, 그런 목가적 환경으로부터 생각의 실마리를 펼쳐나가는 농촌형 인간이었다. 또한 박정희는 목가적 환경에 처했을 때 창조적이며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전인권, 2001 : 87). 당시 그는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교사 이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개조해 보려는 프로그램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새벽이면 언덕에 올라 근면을 위한 기상 나팔을 불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박 선생 하면 나팔소리”를 연상할 정도였다는 일화도 있다. 이러한 일화는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작사, 작곡한 새마을 노래의 1절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를 연상케 한다.

새마을운동은 목가적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박정희

의 의지의 소산이기도 했지만, 실은 1970년대의 박정희 체제를 지탱시킨 핵심적 정책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그의 국가주의적·공동체적 정치 사상과 그 약점이 잘 드러나는 정책으로서, 1970년 4월 22일, 박정희가 전국지방장관유시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하면서 시작되었다(정재경, 1991 : 453). 이 유시에서 박정희는 농촌 재건을 강조하면서 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였으며(박정희, 1973 : 761), 1971년부터 2년의 실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새마을운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¹⁵⁾ 박정희는 정부 지원과 적극적 홍보를 동원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국민의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이 운동의 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또한 그 공간적 범위도 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공장새마을운동, 학교새마을운동, 도시새마을운동, 대학새마을운동 등으로 넓혀 나갔다. 유신체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교육 시스템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유신 이념의 실천도장’으로 강조되면서 초기의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부터 정치적 국민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그 나름대로 농촌의 개발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 동기를 유발했으며 생활환경의 개선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관주도로 일관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관에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취락 및 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 경관의 획일화를 가져왔으며 화장술적 조경과 결합되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박정희의 목가적 이상 속에 담긴 이상적인 환경 또는 경관, 혹은 새마을운동이 지향한 그 ‘살기 좋은 내 마을’의 경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는 곳곳에서 그러한 이상의 기준을 유럽의 경관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남기에 충분한 기록과 발언을 남기고 있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으로 변화될 마을 경관의 이상적 기준을 유럽 농촌에 두고 있었으며 고속도로변 조경으로 변화된 마을 모습을 서구의 농촌 경관과 비교한 경우도 발견된다. 예컨대 “며칠 전에 전주에 갔다 오면서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한 것을 보니 구라과 농촌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마을이 아름다워지니까 요즈음 마을의 노인들이 자주 뒷산에 올라가 옛 모습과 비교하여 감회에 잠긴다고 하더군요. 부락이 아름다워지면 농민들의 의식 구조도 달라지게 되고 자연, 나무심기, 하천 보수 등 주변 정화 사업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김재영, 1978 : 326 재인용)라는 박정희의 언급은 그가 설정한 아름다운 경관의 기준이 유럽의 목가적 농촌 풍경에 있음을 시사한다. 장녀 박근혜가 1976년 12월 17일에 KBS와 가진 한 인터뷰에서도 박정희의 유사한 사고가 노출된다: “며칠 전 유럽의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 담긴 달력을 방에다 걸어놓았다.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오셨길래 우리 농촌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릴렀더니 머지않아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안효빈, 1977 : 212 재인용).

즉 박정희의 목가적 이상은 상당 부분 서구의 전원 이상(pastoral ideal)과 연관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서구의 전원 이념이 풍경화 속의 자연 또는 ‘그림 같은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¹⁶⁾ 1978년 10월 5일에 거행된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의 연설문 중에 등장하는 박정희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의 목가적 이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푸른 뒷동산을 끼고 아담하고 산뜻한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농촌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라는 새마을 노래의 유명한 구절 역시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서구의 전원 이상과 교집합을 갖는 박정희의 목가적 이상은 개발의 은폐 또는 화장에 조경의 역할을 두었던 그의 조경관과도 다시 중첩된다.

IV. 맺으며: 박정희 조경의 유산

박정희는 한국 현대 조경 교육과 전문업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중심 축이었다. 마치 한국의 다른 분야가 박정희 체제 속에서 근대화를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경 역시 종래의 비전문적 기술 분야에서 벗어나 현대적 체제와 제도를 마련해가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

던 박정희의 조경관, 즉 조경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는데에 접근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었다. 그의 생각은 당시 조경의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현대 조경에도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박정희라는 주제는 한국 현대 조경사의 1장이자 조경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정희는 한국 조경사 속의 박제된 이미지가 아니라 역동적 사료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박정희와 그 정권에 의해 한국 현대 조경이 비로소 태동될 수 있었던 것은 1) 박정희의 아마추어적 취미를 넘어서는 조경에 대한 관심과 2) 박정희 체제의 경제개발 정책 및 민족주의 담론에 조경이 유용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박정희가 조경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즉 조경관—은 1) 개발의 은폐 또는 화장, 2) 모순된 전통관, 3) 목가적 이상, 이 세 가지 차원의 복잡하면서도 긴밀히 연관되고 일면 모순적이기도 한 혼합물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조경이 한국 현대 조경사 30년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의문에 정확한 답을 마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그 정권)는 동시대(contemporary)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이 그 시기로부터 아직 2세대로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우리는 그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박정희 시대의 물리적 시간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시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김호기, 1998 : 93)이라는 점은 오히려 우리의 결론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의 시간과 공간이 여전히 연속적이라면, 다시 말해 박정희의 조경과 동시대의 조경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시대 한국 조경의 여러 양상 속에서 그의 유산을 엿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의 조경은 동시대 조경이 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연원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행형의 형태를 띤 추론적이고 잠정적인 결론만큼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현대 조경의 난맥 중의 하나인 화장술적 조경의 연원이 박정희식 조경으로 소급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세계 조경 전반에서 노출되는 난점이다. 그러나 박정희식의 시각적 녹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한국 현대 조경의 출발이 개발의 환부를 가리는데 봉사하는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본다면, 화장술적 조경과 박정희 사이의 함수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조경은 곧 나무심기'라는 조경에 대한 일반적인 고질적 등식 역시 푸르게 덮는 물량 위주의 조경이 능사라고 본 박정희 시대의 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박정희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강조되었던 '전통'은 당시에도 불분명한 실체로 조경에 수용되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허약한 논리에 기댄 채 다수의 조경 작품 속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특히 과거 양식 속의 몇 가지 형태를 표면적으로 차용하는 식의 조경이 전통적 조경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 박정희식 조경의 유산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박정희의 조경관에 내재해 있던 목가적 이상은 동시대 도시 조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어색한 '자연' 도입의 열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게 한다. 물론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갈망과 향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그 중 많은 부분은 박정희와 조경의 관계를 벗어난다. 그러나 풍경화식 정원 내지 '그림 같은 자연'과 결합된 동시대 조경의 자연관과 유럽풍의 낭만적 경관을 목가적 이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박정희의 조경관이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점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동시대 한국 조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설·환경 프로젝트의 영역과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의 뿌리는 박정희의 조경관 및 그 시대 조경업의 양상으로 소급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생태복원녹화 사업이 조경업의 발전 및 영역 확장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는 점은 산림 녹화를 비롯한 다양한 녹화 사업에 큰 비중을 두었던 박정희의 조경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밖에, 본문에서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관광 개발 및 신도시 개발 등이 조경업 및 조경학과 관계를 맺으며 다각도로 발전해 온 점 역시 박정희 시대 조경의 영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생태관광 및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과 실천이 조경의 영역과 중첩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조경학과 조경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양상 등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 조경의 해묵은 숙제 중의 하나인 교육 인력의 과잉 공급과 사업 물량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는 민간의 수요와 무관하게 관주도로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박정희 시대의 조경 제도화 과정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박정희의 조경'관'에서 직접 파생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경 태동기의 중심 축이자 동력이었던 박정희가 한국 조경에 남긴 난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 1. 한국조경학회 창립 10주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 20주년과 25주년, 한국조경학회 30주년 등을 맞을 때마다 한국 현대 조경 초창기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움이 기획된 바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회고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역사적 평가나 비판적 시각을 보인 적은 드물다. 오히려 1970년대의 신문을 통해 당시의 조경을 분석하고자 한 김태경(2000)의 시도는 신선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정영선(2002)의 글은 한국 현대 조경사의 시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주 2. 박정희와 조경의 관계를 가장 깊숙이 다룬 기존의 자료로는 김정렴(1997)의 회고록과 오휘영(2000)의 연재물인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박정희를 지근에서 보좌한 인물이기 때문에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세한 조경 관련 일화나 사건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의 조경관과 그 영향에 분석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주 3. 그러한 식의 정책 목록은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전자도서관(www.parkchunghee.or.kr) 등에 정리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 주 4. 청와대 비서실에 조경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두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와대는 1972년 당시 국내에 정규 교육 과정이 없었던 조경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시카고 지역녹지관리처에서 근무하던 오휘영을 찾아내 조경담당 비서관으로 영입했는데, 박정희의 조경관을 실천함에 있어서 오휘영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그의 조경 파트너 앤드류 잭슨 다운닝(Andrew Jackson Downing) 사이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와 한국 현대 조경의 성립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오휘영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추후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판단된다.
- 주 5. 단적인 예로 어린이대공원 건설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어

린대공원은 서울시 성동구(현재는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서울컨트리클럽'을 공원화한 것인데, 골프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는 1970년 12월에 공원화를 지시하였고, 갖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1972년 11월에 기공식을 한 후 이른바 '100일 작전'이라는 강행군 끝에 다음 해 어린이날 개장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정은 박인재의 논문(2002 : 58-61)을 참조할 것.

- 주 6.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에서 배운 독도법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다양하게 활용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같은 대사업을 구상하거나 작업을 지시할 때 그는 등고선까지 들어간 계획도를 단순 명쾌하게 측석에서 그리곤 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일화는 조갑제의 책(1999 : 114)을 참조할 것.
- 주 7. 전문적인 조경 용역을 위해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된 한국종합조경공사(1974년)의 배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종합조경공사는 민영화되기 전까지 정부 발주의 대규모 조경공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다.
- 주 8.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성향이 과연 민족주의적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이지만,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이해는 손호철(1995)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 주 9. 현충사 외에 유사한 예로는 낙성대, 금산 칠백의총, 광주 충장사, 예산 율봉길 유적, 천안 유관순 유적, 해주산성, 진주성, 무열왕릉, 오죽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상세한 목록은 김정렴의 책(1997 : 58-59)에 잘 정리되어 있다.
- 주 10.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계획은 당시 국토조계회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주 11. 박정희의 현장 지도는 연초의 연두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정 각부의 초도 순시, 각 지방정부 초도 순시, 각종 공사 현장과 새마을 사업 현장의 방문 지도로 짜여졌다. 그가 세운 중요한 국정 목표들은 중장기 연차계획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 지도를 강화한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식량증산 10개년계획, 전원개발 5개년계획, 치산녹화 10개년계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주 12.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인 논쟁으로는 국립종합박물관(1966년, 강봉진 설계)과 부여박물관(1967년, 김수근 설계)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통 논쟁을 계기로 과거의 양식과 그것의 현대적 변용에 관한 건축사 연구의 양과 질이 확장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 주 13. 상세한 사례는 정재훈(2000)과 오휘영(2000a)의 회고를 참조할 것.
- 주 14.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현충사와 도산서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적지에 식재된 '금송'을 비롯한 몇몇 수종은 왜색 조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주 15. 새마을운동에 관한 상세한 통계적 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것 : 내무부(1980).
- 주 16.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배정환의 논문(1999)을 참조할 수 있다.

감사의 글

- 1. 본 연구는 지난 2002년 1학기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한국조경

특론' 강의에서 기획되기 시작했다. 이 세미나에 참여했던 강진형, 정성철, 이영숙의 성실한 자료 조사와 토론에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강진형(현재 한설그린 근무)은 많은 양의 일차 자료를 수집, 독서, 분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2. 필자는 논문 심사 과정을 거치며 오달자 수정에서 연구 시각의 교정에 이르기까지 익명의 세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 특히 사실(史實) 기술과 해석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며 본 논문의 일면 저널리시틱한 접근을 교정해 주고자 애쓰신 한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 드린다.

인용문헌

1. 김대환(1993)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 신화와 현실. 역사비평 23호 : 48-63.
2. 김재영(1978) 박정희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집. 서울 : 자유문화사.
3. 김정렴(1997) 아, 박정희. 서울 : 중앙 M&B.
4. 김태경(2000) 신문으로 본 1970년대의 한국 조경. Locus 2 : 조경과 비평. 서울 : 조경문화. pp.172-91.
5. 김호기(1998) 박정희시대와 근대성의 명암. 창작과 비평 99 : 93-111.
6. 내무부(1980) 새마을운동사 10년사 자료편. 서울 : 내무부.
7. 박명립(1996) 근대화 프로젝트와 한국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소수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서울 : 역사비평사. pp.311-48.
8. 박인재(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박정희(1973)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 : 제 6대편. 서울 : 대통령비서실.
10. 박정희(1978) 민족중흥의 길. 서울 : 평명출판사.
11. 배정환(1999) 조경설계에서 전원 이상의 전통과 그 이면. 한국농촌계획학회지 5(2) : 46-55.
12. 손호철(1995)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해방 50년의 한국 정치. 서울 : 새길. pp.131-151.
13. 안효빈(1977) 가까이서 본 박정희 대통령. 서울 : 휘문출판사.
14. 안창모(1996) 한국 현대 건축 50년. 서울 : 재원.
15. 오휘영(2000a)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4) : 현충사 성역화 사업. 환경과 조경 144호 : 32-35.
16. 오휘영(2000b)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5) : 조경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과 주요 프로젝트. 환경과 조경 145호 : 32-35.
17. 전인권(2001)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정영선(2002) 되돌아 본 한국 조경의 30년. 한국조경학회 편. 한국의 조경 1972-2002.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pp.111-17.
19. 정재경(1991) 박정희 사상 서설. 서울 : 집문당.
20. 정재경(1992) 위인 박정희. 서울 : 집문당.
21. 정재훈(2000) 나의 길 나의 인생(1) : 일제 잔재 청산과 문화재 조경. 환경과 조경 145호.
22. 조갑제(1999)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 서울 : 조선일보사.
23. 중앙일보 특별취재팀(1998) 실록 박정희. 서울 : 중앙 M&B.
24. 최정민(1993) 움스टे드 양식이 한국현대조경작품에 미친 영

- 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황기원 (2002) 한국의 조경교육 30년 : 회고와 전망. 한국조경학회 편, 한국의 조경 1972-2002.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pp. 55-66.
26. Hobsbaum, E., and E.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Chatterjee, P. (1993) *Nation and Its Fragments : Colonial and Post Colonial Histori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www.parkchunghee.or.kr (박정희 대통령 전자도서관)

원 고 접 수 : 2003년 8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10월 7일
3인의명 심사필